전남도, 올해 관광개발사업에 1,490억 투입

‘방문의 해’ 맞아 안심 체류관광 등 행정력 집중

섬사랑 별빛캠핑·청정 관광지 등 자체사업 추진

전남도가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올 한 해 1,490억원을 들여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보다 203억 원 늘어난 규모다.

균특(지방이양) 사업이 139건 1,117억원으로 ▲관광지 개발에 노후관광지 재생지원 37억원, 영산호관광지 조성 9억원 등 총 13건 141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여수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 4억원, 순천만국가정원 야간경관 연출 48억원, 나주 마한 별자리공원 조성 4억원 등 총 95건 774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목포 용해생태체험시설 조성 12억원, 순천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 조성 5억원, 나주 느러지전망대 산책로 조성 6억원 등 31건 202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기금) 사업은 3건 312억원으로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장설치 66억원, 리조트호텔 건립 108억원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05억원 ▲강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3억원 등이다.

도 자체사업 9건 61억 원 중 신규 공모사업은 3개 사업 39억원으로 ▲섬 사랑 별빛 캠핑 지원 24억원 ▲탄소 없는 청정 관광지 재생 10억원 ▲청정전남 이미지 강화 바이러스 프리 5억원이다.

‘섬사랑 별빛캠핑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캠핑레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연경관, 토지확보, 접근 등이 우수한 다도해 섬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세면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감성사진 촬영 핫플레이스와 결합한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농수산물 밀키트 제품을 사전예약제로 판매하는 등 지역 소득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탄소없는 청정 관광지 재생사업’은 전국 최초로 관광부문 탄소중립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친환경 힐링, 교육, 체험 관광지로 조성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노후화로 침체한 관광지에 차 없는 구간 조성,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존 시설의 탄소저감 그린 리모델링, 관광지 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쓰레기 자원화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또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험, 홍보를 통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정전남 이미지 강화(바이러스 프리)’ 사업은 시군 관광명소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관광지 출입구에 다양한 스마트 안전 출입관리 시스템(LOT)을 도입하고, 각종 비대면 관광 안내 및 위치기반시스템 등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는 거리두기 시스템을 운영한다.

각 사업은 2월 중 시군 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개발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도, 괭생이모자반 양식장 유입 차단

긴급 수거·처리 모니터링 추진…피해 예방 최소화

전남도는 괭생이모자반의 양식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 양식장 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신안 자은면에 지속 유입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 수거·처리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은 대규모 띠 형태로 이동해 연안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 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또 수산양식 시설 훼손 및 양식생물 폐사 등 2차 피해를 일으킨다.

지난해 신안과 진도 등 전남해역에 8,618톤이 유입돼 양식장에 약 20억 원의 피해를 줬다.

올 들어선 아직 큰 피해가 없지만, 겨울철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괭생이모자반이 서해안으로 유입한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 조건에 따라 서해중부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안가에 밀려온 괭생이모자반을 시군 공무원, 주민 등 수거 인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해경에서 예찰 결과를 해당 시군과 어업인에게 전파하고 있다.

전남도는 괭생이모자반 대량 유입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단 시설물 자체 사업비로 도비, 군비 등 4억 원을 확보해 유입 가능성이 큰 해역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시설물은 부류식 그물로 방지망에 모자반이 적체되면 어선, 청항선 등을 동원해 신속한 수거로 양식장 추가 유입을 막고, 시설물 훼손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신안에서는 빠른 시일 내 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상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사업 효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시설물 설치 해역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국비를 확보, 주기적으로 대량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을 사전 차단해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 수거·처리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 괭생이모자반을 신속히 수거·처리해 해양환경과 수산양식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당 지역 어업인도 예찰 및 수거 작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길용현 기자

소비쿠폰으로 차례상 준비해요 설을 맞아 광주시 동구 학운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3일 오전 관내 저소득층 100세대에 동네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나눔 전달식을 갖고 함께 장을 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시, 남구청 앞 9→7개 차로로 축소

도시철도 2호선 추가공사…19일부터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19일부터 백운광장 주변, 남구청 앞 추가공사로 인한 교통전환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진행하던 동아병원 앞 가시설 설치에 이은 공사구간 확장이다. 교통전환 시 대남대로는 현재 운영 중인 9개 차로에서 7개 차로로 축소되는데 주변차로와 교통량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조선대방향 3개 차로, 농성역방향 4개 차로로 배분할 계획이다.

추가 공사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 211정거장과 지하차도를 병행 시공하는 구간으로 2개 차로를 추가 점유해 복공판 설치 및 가시설 설치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공사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남구청 앞 보도는 설 명절 이후 당분간 통행이 어려워져 우회해 통행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현수막 설치, 동행정복지센터 홍보 등을 통해 보행자들이 우회해 통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며, 추후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보행자 통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정보와 교통상황 상습정체구간 안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사구간 및 우회도로 안내, 월별 사전예고제 시행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와 협업회의를 개최해 공사 중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오던 백운광장 주변 지하철과 지하차도 공사 이후 단계별 교통전환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혼잡이 예상되니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해주시고, 변경된 차로 표시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 군수 출마…“젊음으로 군정혁신”

김대현(46) 무안군의회 의장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장은 13일 무안군의회에서 비대면 출마 선언식을 하고 “뼈를 깎는 혁신만이 무안을 바꿀 수 있다”면서 “새로운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 군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오룡·남악지구 학생들을 위해 무상 통학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수도권 수준의 대학 진로상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의장은 미래형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과 함께 테마형 도서관 등 인프라를 구축, 오룡·남악지구를 전국 최고의 교육 문화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청년수당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무안을 젊은 도시로 바꿔나간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의장은 2019년 무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 2020년 역대 최연소로 의장직을 맡아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

내달 3일까지…9.15% 공제 혜택

광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내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 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 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선우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국악공연

물리치료실

클레이프로그램

특별공연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검색창에 학원114 를 쳐보세요